

다양한 채널 통한 홍보기능 수행해야

먼저 국내 석유산업의 중추인 정유 5사를 회원사로 하는 대한석유협회의 소식지, '석유협회보'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협회보 20년은 그 동안 국내 석유산업,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정유업계가 걸어온 발자취의 이모저모를 남김없이 기록, 전달해온 매체로서 20년의 성상(星霜)이야말로 결코 짧지 않은 연륜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같은 정보전달자란 언론계 종사자의 일원으로서 81년 3월 창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다 더 알차고 실속 있는 소식(消息) 내지는 정보(情報)를 담아내고자 심없는 정성을 기울려온 협회보 제작진 관계자의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공로(功勞)에 진정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옛말처럼 '강산(江山)이 두 번 변한' 20년치분 석유협회보를 한 호 한 호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 나라 석유산업의 성장·발전사는 물론 술한 변천과정을 적나라하게 읽고, 파악해 볼 수 있듯이 역사(歷史)를 기록하는 작업이야말로 한 기업이 많은 경비를 들이면서까지 사사(社史) 편찬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영래

〈에너지경제신문 기자〉

21세기를 연 오늘날 정유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석유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적 요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식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의 변화무쌍한 상황의 연속이다. 소위 '굴뚝산업의 전형'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했던 정유산업이 급격한 정보화시대를 맞아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맞고 있는가 하면 지난 92년부터 시행돼온 -특정정유사와의 거래관계 유지를 골간으로한- 주유소 단수 상표표시제(표사인제)를 폐지하고 거래 당사자간 사적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여러 정유사와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

상 복수 폴사인제로의 전환을 목전(目前)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 수입·판매사들의 우후죽순(雨後竹筍)적 급증추세, 특정 정유사와의 거래관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무폴주유소(Non-Pole)의 꾸준한 증가세 등도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치부할 수 없는 현안과제들로 떠올라 있는 형국이다.

이와 같이 복잡 다양하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외부 환경적 변화 요인들에 얼마만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유업계 각사의 부침(浮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물며 석유협회 기능 역시 이들 정유업계가 처한 환경적 변화요인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발맞추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게 합목적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협회보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 업계소식지로서의 역할에서 탈피, 변화무쌍한 정보전달매체로서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변혁을 모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리란 판단이다.

이 같은 시각은 현재의 석유협회가 추구하는 노선 내지는 협회보의 면면을 오로지 질타하기 위한 의도는 추호도 없다. 다만 지금까지 정유업계 및 협회의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또한 협회보를 애독하는 수많은 독자층의 한사람으로서 아쉬웠던 점을 이번 기회에 제시하고자 하는 심정일 뿐이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들어 석유협회가 수립한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면면에서 예년의 그것과는 달리 對官, 對國會, 對言論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외적인 홍보기능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측면이 두드러져 한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취임한 최두환(崔斗

煥) 신임 회장의 취임 일성(一聲)이 “국내외 정유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업무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협회는 대 정부 즉, 재정경제부, 산자부, 국세청, 공정거래위, 건교부, 환경부 등과 함께 국회 관련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및 그 보좌팀, 각 정당의 관련 실무팀과의 협력관계 증진에 적극 나서는 등 현재의 조직 및 활동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협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대목 역시 협회 기능 활성화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한 것임을 엿볼 수 있어 매우 전망적이란 느낌이 강하게 든다.

어차피 ‘쓴 소리’로 방향을 튼 이상 한가지 더 언급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협회 기능의 활성화에 더해 잔치날을 맞은 협회보의 경우, 확산추세에 있는 인터넷 시대에 걸맞은 발행간격의 「틈」을 줄이는(격월간에서 최소한 월간으로) 방안에 관한 얘기가.

하루가 다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최장 2개월(60여일)전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정보전달매체로서의 기능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예산운영상의 어려움 등 협회가 처해 있는 속사정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나 석유협회보가 차지하는 비중, 다시 말해 국내 석유산업계의 중추적 위치에 포진해 있는 정유업계의 발전 내지는 이에 상응하는 협회보로서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치 않을까 하는 점을 감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아무튼 다시 한번 창간 20주년을 축하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석유협회보의 다음 호를 애정 어린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